여고생이 바라는 학교. 그리 어렵지 않아요~

What we want for school is not too difficult~

윤 희 지 / 충북 여자고등학교
Yoon, Heui-Ji / Chungbuk girls' high school
rhtmxmaaa@naver.com

1. 서론

현 교육 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 강대국이다. 일찍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도 중요시 해 온 만큼 교육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교육 시설인 학교 또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

현재 충북에 위치한 여고에 재학 중인 나에게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특별하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느끼는 점, 생각해 왔던 것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적인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선 잠시 내려두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한 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주변 시설 및 환경

우리 여고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높은 언덕일 정도로,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언덕이라는 지리상 위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그 중 언덕 위 학교가 으레 그렇듯 학생들이 등교할 때 오르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참 외모에 관심 많을 사춘기에 학교를 오르내리기를 반복한 여학생들의 다리는 나날이 두꺼워지고, 핸드폰 어플 중 하나인 '심심이'에서는 우리 여학교를 치면 코끼리 양성소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그림 1. 인근 대학교에서 찍은 풍경

그림 2. 온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학교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데 좋은 것 같다면서 학교의 장점의 하나라고 예를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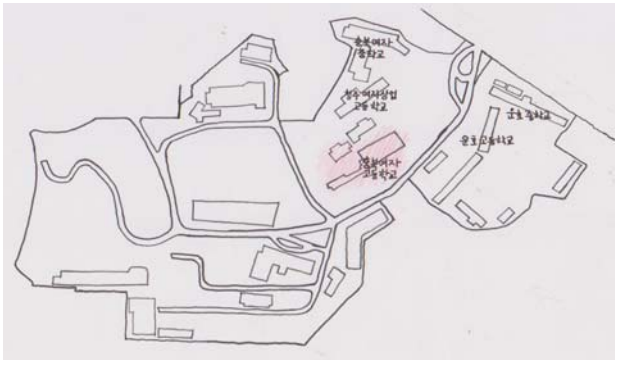

그림 3.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들

언덕과 더불어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양대 산맥 중 하나는 바로 건물들의 배치이다. 우리 여고 주변에는 대학교를 비롯해서 남중, 남고, 여상, 여중 등 같은 재단에 소속된 학교들이 여럿 몰려있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 여러 학교들이 몰려있다 보니 학교의 토지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 여고의 학교 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학의 땅을 빌려 지었고, 체육관은 자리가 없어서 여상의 땅위에 지었을 정도로 토지가 부족하다.

학교들이 한 곳에 몰림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토지부족 뿐만이 아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나 택시, 자가용 등으로 인해 언덕 아래 구간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정체현상 때문에 기사들이 옆 차선에서 나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커브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신호등 앞쪽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차로 가로막는 형상이 된다. 보행자들에게 이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

학교 앞 진입로를 확장한다면 정체현상이 학교가 몰림으로써 아침마다 벌어지는 정체현상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학교 시설

1) 복도

우리 학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교실 두 개가 나란히 마주보는 구조를 하고 있다.

수업 할 때마다 문을 열어두면 다른 반의 수업소리가 건너 반 까지 들려와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간이 적응의 동물인지라 학기 초 보다는 많이 익숙해지긴 하지만 건너 반에 목소리 큰 선생님께서 들어오기라도 하시면 그 수업시간이 몹시 괴로워진다. 특히 우리 반 경우는 1학년 마지막 반이라 주변에 2학년 반과 붙어있는데, 아침에 영어듣기를 할 때에도 소리가 겹쳐서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예 영어듣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림 4. 중복도 구조의 모습.

건너 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고,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더 큰 문제는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것과, 이러한 배치로 인해 어떤 학급은 필연적으로 창이 북쪽을 향해 나있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와도 통풍 문제로 거의 사라지지 않고, 어두워서 그런지 깔끔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에서 환경심사를 자주 하는 것 일지도 모르겠다.

중복도 식으로 학교를 계획하게 된다면 교실과 교실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앞쪽 교실의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급의 창문을 빛이 안 들어오는 학급이 없도록 적절히 조절하여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급식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학교는 언덕위에 위치해 있고, 다른 학교들과 밀집되어 있어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교 뒤편, 언덕의 중간쯤에 급식소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곳까지의 길이 무척이나 길고 험난하다.

혹시라도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이면 바람타고 들어오는 빗물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 점심 저녁으로 시작된다. 바로 몇 일 전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왔었는데 급식소로 가는 점심 시간대에가 가장 고비였을 뿐 아니라 바람을 막아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인데 모두가 빗물로 샤워를 해 버렸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급식소가 바로 붙어있었으면 좋겠

그림 5. 급식소 가는 길

그림 6. 급식소 가는 계단

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쓰는 투명한 막 같은 것 정도라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올려놓고 비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내려서, 바람 따라 옆으로 흘러들어와 몰아치는 빗물들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역시 최선은 교실에서 급식소까지의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과학실

실험 때문에 과학실에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과학실의 창문이 워낙 작고, 적은데다 밀폐되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했다던 동물 해부 실험 때 사용했던 동물 시체 냄새와 화학 약품 냄새가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었다. 그 불쾌감이 올라오는 냄새에 과학실로 들어왔던 아이들은 모두 인상을 찡그리며 헛구역질 하는 시늉을 하곤 했고 문을 열어놓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 모두 잔뜩 찡그린 얼굴로 실험을 하게 된 적도 있었다.

부디 학교에서 과학실을 만들 때 통풍 및 환기와 더불어 냄새가 잘 빠지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구 건물과 신 건물

그림 7. 좌측에 위치한 신 건물

그림 8. 우측에 위치한 구 건물

우리 학교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신 건물과 옛날엔 교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미술실, 음악실 등의 예체능 교실을 비롯한 도서실, 보건실 등으로 쓰이는 구 건물이 있다.

구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세 구간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중앙으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문이나 통로도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을 비교적 많이 왕래하는 것에 비해 연결해 주는 통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앙 쪽은 급식소 가는 길과 겹치기 때문에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비를 맞으며 가기도 한다.

이것 역시도 같은 건물 안에 기타 교실을 설치하거나 두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교과교실제 VS 일반교실제

처음 중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교과교실제가 아닌 기존의 일반적인 학교였다. 그러다 중

학교 3학년 때 전학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는 시범 학교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전학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학교의 환경은 무척이나 낯설었다.

주요 과목이라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시간표에 들은 모든 과목에 따라 담당 교과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수업은 수준별로 나뉘어 1학기 때에는 국영수는 최대 8반으로 나뉘기도 했었다.

기존의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는 좋은 점인 동시에 좋지 않은 점이기도 하다. 교과교실제가 아닌 학교에서는 반별로 선생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 반이 많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과교실제의 경우에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인 경우 과목별로 반이 여럿 필요해 지는 것은 물론이고, 홈베이스 설치로 인해 일반교실제에 비해 반이 많은, 건물이 큰 곳에서나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능률이나 학업여건이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좋은 점도 많았다. 하지만 상당한 길치인 나에게 그 큰 건물에서 층별, 과목별, 수준별로 나뉘어진 반 찾아가라는 것은 길 없는 산을 혼자 헤매는 것과 다름없었다. 교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온갖 고생을 겪었던 것이다.

자신의 반도 있고, 담임선생님도 있지만 자신의 반은 담임선생님이 담당 과목을 수업하는 교실이었고, 그렇다 보니 같은 학년이라 할지라도 어느 반은 2층에 있고, 어느 반은 4층에 있고 하는 식으로 친구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 교과교실제가 아닐 때에는 바로 옆 반에 친구를 찾아가 교과서도 빌리고 했었는데, 모두 이동수업을 하다 보니 친한 친구라도 반이 다르면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만나기가 힘들다.

새 학기가 시작 할 때에는 학생들도 바뀐 교실로 찾아가기도 힘들어 하는데, 참관 수업하러 오신 학부모님들이라고 다르실까.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신의 자녀가 어느 반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반에 들어가 계시는 학부모도 여럿 보았다. 곳곳마다 층별 지도가 있지만 처음 온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간단하진 않다.

게다가 교과교실제 특성상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는 입장이기에 수업이 끝나고 짐을 싸고 홈베이스에 들려 다음 과목 책을 준비하고 찾아가다 보면 계단에서 올라가는 학생들, 내려가는 학생들로 붐벼서 왔다갔다 하기도 쉽지 않고, 그 움직이는 시간동안 쉬는 시간이 다 가버린다. 학창시절 묘미라 불리는 쉬는 시간이 이리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니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시간이 정체되니 만큼, 통로를 넓히고, 연결 통로나 계단을 여러 곳에 설치해서 인파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직 교과교실제는 시행 과도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이며 고등학교이어서, 다른 공립학교나 중학교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 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라니까 학교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안내를 해주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는 정부에서 만들지만 그 제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학생이며,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 정말로 필요한 점을 생각해 주고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5. 글을 마치며

이번 글을 쓰면서 가족들의 학교 다닐 때의 교육시설과 환경에 대해 듣곤 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도 지금 세대에는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께서 우리들이 더 낳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시기에 그런 어머니를 보며 후엔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낳은 환경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래에는 더 좋고 발전된 환경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발전될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교육시설과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